

[붙임 1]

	활동 보고서
--	--------

새섬 조도에서 돌섬 독도까지

접 수 번 호	
학 교 명	조도고등학교
동아리(팀)명	독도사랑반

1. 우리 동아리(팀) 소개하기

○ 동아리(팀)명 소개

조도고등학교(교장 허종회)는 전라남도 진도 팽목항에서 뱃길로 40여분 더 걸리는 조도에 위치한 도서벽지학교로 2016년부터 2018년 현재 3년 동안 계속해서 독도지킴이학교로 선정되었고, 고1학년 15명, 고3학년 2명 등 17명으로 구성된 독도사랑반(지도교사 김희철)은 우리 땅 독도의 역사문화적 이해를 증진하여 영토주권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3단계(1단계 독도 바로 알기, 2단계 독도 사랑, 3단계 독도 홍보)로, 독도지킴이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동아리(팀) 구성원

순번	성명	학년	동아리(팀) 내 역할
1	안수현	3	동아리 대표/촬영
2	허윤정	3	부대표
3	고영빈	1	교육부장
4	김가현	1	홍보기획
5	김성현	1	
6	김호림	1	
7	박근영	1	홍보부장/UCC 리포터
8	박광민	1	
9	박민건	1	
10	박상우	1	
11	박주연	1	교육기획
12	박주연	1	홍보기획
13	박지우	1	
14	이윤주	1	부대표/UCC 리포터
15	장유진	1	봉사부장/UCC 리포터
16	허창성	1	봉사기획
17	김호수	1	

2. 독도체험 활동 소개하기

① 활동 주제 : 독도 바로 알기

- 주제 선정 이유 : 이웃나라의 보수적이고 우경화 경향에 따른 역사왜곡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이해를 먼저 증진시킴으로써 독도 영토주권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함
- 활동 기간
 - 1차 : 5.11.(수)~7.20.(금) 실시
 - 2차 : 9.3(월)~11.30.(금) 예정
- 추진 방법 : 독도 골든벨, 전문가 초청 독도 계기교육(전라도 남해안 어부와 독도 이야기), 내가 다녀 온 독도 이야기, 독서토론활동



▲ 독도골든벨



▲ 독도계기교육



▲ 내가 다녀 온 독도 이야기(고영빈)



▲ 내가 다녀 온 독도 이야기(한호성)

② **활동 주제 : 독도 사랑**

○ **주제 선정 이유** : 독도의 지리적 인식과 역사적 근거를 토대로 한 작품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독도와 가까워지고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음

○ **활동 기간**

- 1학기 : 6.13.(수)~7.19(목) 실시
- 2학기 : 9.3.(월)~11.30.(금) 예정

○ **추진 방법** : 독도사랑 포스터 그리기, 에코백 만들기, UCC제작



▲ 독도 사랑 포스터 그리기(조도고)



▲ 독도 사랑 포스터 그리기(조도중)



▲ 독도 사랑 에코백 만들기(조도초)



▲ 내가 만든 에코백



▲ UCC (새섬 조도에서 돌섬 독도까지)



▲ UCC 리포팅(도리산 전망대)

③ 활동 주제 : 독도 홍보

- 주제 선정 이유 : 지리적, 역사적, 그리고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우리 땅 독도를 우리 남해안 어부들이 개척하여 삶의 토대가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는 한편, 학습을 통해 얻은 지리적, 역사적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홍보
- 활동 기간
 1. 1학기 : 5.30.(수)~7.20.(금) 실시
 2. 2학기 : 9.3.(월) ~11.30.(금) 예정
- 추진 방법 : 독도 사랑 티셔츠 제작, 급수선을 타고 떠난 독도 홍보 활동, 조도초등학교 독도 홍보 캠페인, UCC 제작.



▲ 독도 사랑 티셔츠



▲ 독도 사랑 홍보(진도군 죽도)



▲ 독도 사랑 홍보(조도초)



▲ 독도 사랑 홍보(진도군 맹골도)

○ 활동 내용(자유롭게 기재하시오.)

날 짜	독도체험 활동 사항	활동 장소	세부 내용
5.11	독도 골든벨	새섬관 (조도고 도서관)	우리가 알고 있는 독도 상식을 통해 우리 땅 독도를 알아가는 퀴즈 프로그램 진행(2학기 2차 예정)
5.21~6.1	독도 바로 알기 독서활동	새섬관 (조도고 도서관)	독도 영유권 분쟁과 올바른 지명 표기 등 갈등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도서 정독
5.30	급수선 봉사 및 독도 사랑 캠페인	맹골도 죽도	급수시설이 없는 낙도를 찾아 급수 봉사를 하며 위문품을 전달하고 독도 사랑 운동을 함께 나눔
6.11~22	독도 사랑 포스터 그리기	미술실	우리 바다 동해와 우리 땅 독도 사랑 마음을 모아 포스터 제작
7.16	독도 계기교육	새섬관 (조도고 도서관)	독도 전문가이며 지리학 박사인 유성종 교감을 초청, 조선후기 전라도 남해안 어부들이 지킨 독도 이야기 청취
7.19	독도 탐방 소개 에코백만들기 독도 사랑 캠페인	조도초 및 창리 일원	독도에 다녀 온 학생들의 이야기를 초등학생 눈높이로 접근한 독도 사랑 교육을 통해 독도 사랑 에코백 제작
7.20~8.9	“새섬 조도에서 돌섬 독도까지” UCC제작	상조도 도리산전망대 조도고 진로실	전라도 남해안 지명과 방언을 통한 독도와의 교감을 나타내는 한편, 전체 활동 과정을 UCC로 제작

○ 제출 자료 목록

순번	자 료 명	자료 형태	간략한 내용 소개
1	활동 보고서	보고서	“새섬 조도에서 돌섬 독도까지” 전라도 남해안 어부와 독도 이야기를 주제로 한 독도체험 발표대회 보고서
2	활동 요약서	보고서	활동 보고서 요약
3	새섬 조도에서 돌섬 독도까지	UCC	독도지킴이학교 1학기 활동 과정을 담은 UCC (https://youtu.be/Hj9EVx8mQAg)

3. 성과 및 향후 계획

○ 활동 성과

- 독도(울릉도 포함)는 전라도 남해안 어부들이 지켜 낸 우리 땅이자 삶의 터전이었다는 점을 알게 됨 (자료 조사 및 초청 강의, 그리고 인터넷 조사 등을 통한 학습)
 - 조선말기 검찰사 이규원이 쓴, “울릉도 검찰일기(1882)”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울릉도 거주민(당시 141명 거주)의 80%가 전라도 출신(115명)이었으며,
 - 우리나라 지명 중 ‘나리’라는 지명이 울릉도와 전남 진도군 군내면 전국에서 두 군데만 존재하고
 - 전라도 남해안 고흥 앞바다에 독섬, 석도, 독도라는 지명의 섬이 세 군데가 있는데, 세 지명 모두 돌섬을 뜻하는 말이며, ‘돌’을 뜻하는 전라도 남해안 사투리 ‘독’에서 독도라는 명칭이 나왔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음. ※ 고종 반포 대한제국 칙령 제41조(1900년)에 독도를 석도(돌섬)라고 표기
 - 독도 서도 북쪽에 있는 큰 가제바위와 작은 가제바위의 명칭은 바다사자(강치)를 뜻하는 전라도 사투리 ‘가제’에서 온 것이며,
 - 독도 남쪽에 있는 보찰바위는 따개비의 일종인 거북손을 전라도 남해안에서 부르는 다른 이름 보찰에서 비롯된 것
-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처하는 공감대 확장
 - 우리 땅 독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 독도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고
 - 독도 주제 독서 및 퀴즈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보다 실증적으로 독도를 이해할 수 있었으며,
 -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역사적 사실과 체험 경험을 조도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 맹골도, 죽도를 비롯한 관내 낙도와 조도 마을, 그리고 도리산 전망대 등 지역 사회와 연계한 독도 홍보 활동을 통해 독도 영토 주권 확립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시켰음

○ 향후 계획

- 2차 독도 골든벨 실시

- 이웃나라의 우경화 경향에 따른 역사 왜곡이 지속되고 있음에 대응하여 지리교육과와 연계하여 2차 독도 골든벨 실시
- 도서지역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우리 고장 남해안 어부들이 지켜 낸 독도 영토주권의식을 제고 시킴으로써 역사·문화 이해를 증진시킬 것임.

- “새섬 조도에서 돌섬 독도까지” 사진집 발간(독도와 전라도 사투리 비교표 첨부)

- 2018년 독도지킴이학교 독도사랑반 활동의 이모저모를 담은 사진집을 발간하여 독도 사랑을 공유하는 한편,
- 독도(울릉도 포함) 사투리와 전라도 사투리 및 각 지역간 유사 지명을 비교하여 선조들이 지켜 낸 우리 고유의 땅 독도의 주권 확립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문화적인 토대를 수립할 것임.

- SNS를 통한 독도 홍보 강화

- 조도고등학교 영상기자단, 전남도교육청 SNS 서포터즈와 협력을 통해 SNS를 통해 활동 과정과 결과를 널리 홍보하는 한편, 독도 사랑 지역 커뮤니티로서의 역할을 더욱 증대시켜나갈 것임

4. 독도체험 활동 후의 감상

동아리(팀)원	느 낀 점
안수현	항해사를 꿈꾸며 바다 이야기에 관심 갖고 있던 도중 독도지킴이학교 독도사랑반 활동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 바다 주권에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다. 특히 울릉도와 독도가 전라도 남해안 어부들의 삶의 터전이었으며 이곳을 지켜냈다는 이야기는 감동이었다.
허윤정	독도지킴이학교 활동 중 가장 뜻깊고 보람있었던 것은 조도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후배들과 독도사랑 에코백을 함께 만들며 독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피상적으로 아는 것과 그것을 가르친다는 것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느꼈다. 가르치면서 오히려 많이 배웠다.
박근영	독도지킴이학교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사실 독도에 대해 관심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독도사랑반 활동을 하면서 관련 책을 읽고, 영상도 찍고, 포스터와 에코백을 만들어 보면서 더욱 재미있게 독도를 알 수 있었던 것 같아 뜻깊은 활동이었다.
이윤주	꿈이 초등학교 교사인데 초등학교 후배들에게 독도에 관한 지식을 알려주고 함께 에코백을 만들며 평소 그 가방을 멜 때마다 독도를 생각할 수 있으니 기뻐다. 독도에 다녀 온 친구들의 생생한 후기를 통해 나도 우리 땅 독도에 언젠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유진	초등학교 후배들에게 독도에 관한 이모저모(강치 이야기, 독도 주변의 부속 섬 지명의 어원 등)를 알려주면서 오히려 공부가 많이 되었던 것 같고 함께 독도사랑 에코백을 만든 것이 정말 보람있었다.

5. 건의사항

○ 독도탐방 진행을 5월~6월중 변경 진행 및 발표대회 마감 연기

- 독도발표대회 마감 기간이 8월 17일로 5월~8월9일까지의 활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정작 독도탐방은 그 이후에 이루어져 탐방 과정의 활동을 담을 수 없고,
- 2학기 활동은 포함되지 못한 채 1학기로 마무리되어 반쪽짜리 독도지킴이학교 활동만 평가대상이 되는 문제점이 있음.